

Market Intelligence

1.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1
2. 주요 통계3
3. 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진 배경 및 동향4

주요 동향

◇ 美, 9월 비농업부문 고용 전월대비 14.8만명 증가, 예상(18.5만명) 하회

- 실업률은 전월(7.3%)대비 하락한 7.2%, '08년 11월 이래 최저
-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63.2%)대비 보합, 1978년이래 최저
- (JPMorgan) 노동시장의 기폭제 결여, 12월 양적완화축소 가능성 낮아, 내년 실시 전망

◇ 유로존, ECB 11월부터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ECB, 유로존 대형은행에 8% 최소자기자본비율 요구할 계획
- (UniCredit)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中, 러시아와 동시베리아 유전 탐사 및 원유가스 생산 양해각서(MOU) 체결

- 中석유천연가스그룹(CNPC)과 러시아 국영 OAO Rosneft社, 원유수송관을 통해 中·아태지역 국가들에 원유를 공급 계획
- (WSJ) 유럽이 셰일혁명을 계기로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북미 등으로 옮기자 러시아의 태도 전환

◇ BIITS 국가들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투자기피현상 확산

- (블룸버그)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및 美출구전략 시행시 예상되는 유동성 부족 등 취약한 경제구조가 원인

※ BIITS : Brazil, India, Indonesia, Turkey, South Africa

① 외환시장

- (원-달러, 원-엔) 원-달러환율은 수출업체 달러매도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따른 경계감 지속으로 소폭 상승, 원-엔 환율은 美 양적완화 축소 연기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로 상승
- (엔-달러, 달러-유로) 美 달러화는 양적완화 축소 연기 전망으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

구 분	'12년말	'13. 10. 18	'13. 10. 25	전주비
₩/US\$	1,070.6	1,060.8	1,061.8	1.0
₩/100¥	1,235.0	1,082.6	1,093.3	10.7
¥/US\$	86.75	97.99	97.12	△0.87
US\$/€	1.3192	1.3664	1.3814	0.0150

② 채권시장

- (韓 국채금리) 3분기 실질 GDP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세 지속으로 소폭 하락
- (美 국채금리) 美 소비지표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

구 분 (%)	'12년말	'13. 10. 18	'13. 10. 25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82	2.82	2.80	△0.02
미국 국채(10년)	1.76	2.58	2.51	△0.07

③ 주식시장

- (韓 KOSPI) 외국인 순매도 전환 및 中 자금시장 경색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 [(10.18) 2,052.40 → (10.25) 2,034.39]
- (美 DJIA) 3분기 기업실적 및 9월 내구재주문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10.18) 15,399 → (10.25) 15,570]

① **3분기 국내총생산(GDP)** :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대비 3.3% 성장

-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민간 소비 증가세 지속
- 설비투자 : 기계류 1.2% 증가 (전년동기대비 +1.8%)
- 수출 :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

② **2012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 성장성 증가폭은 전년보다 축소, 수익성도 하락, 안정성은 개선

- (성장성) 전년대비 매출액증가율(12.2%→5.1%), 자산증가율(9.6%→5.1%), 유형자산증가율(9.2%→6.5%) 등 전체적인 성장성 하락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4.5%→4.1%), 매출액세전순이익률(3.7%→3.4%) 등 전년대비 수익성 소폭 하락
- (안정성) 부채비율(152.7%→147.6%), 차입금의존도(32.2%→31.9%) 등 전년대비 안정성 지표 개선

③ **BDI지수** : 1,671으로 전주대비 230point 하락

- 중국의 철광석 재고증가에 따라 지수가 급격히 하락
- HRCI 지수는 2.0point 하락한 506.0을 기록

④ **유가** :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중국의 긴축 우려 등으로 하락

(US\$ / 배럴)

유 종	10월 18일	10월 25일
WTI유 현물	100.74	97.71
Brent유 현물	109.71	106.36
두바이유 현물	105.82	104.47

- ◆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수의 경제통합체(TPP, RCEP, FTAAP) 형성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추진배경 및 각 경제통합체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1. 아태지역 내 경제통합 추진 배경

□ (외부요인)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체 형성 및 신규 추진 추세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증대

- 특히, 최근 EU, Mercosur는 신규가입국* 확보로 규모 확대

* '13.7월 크로아티아는 EU에, 베네수엘라는 Mercosur에 신규 가입

주요 대륙별 경제통합체 현황

지 역	기 형 성	신규 추진중
아시아·태평양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 - 한·중·일 FTA
유럽·CIS	- EU(유럽연합)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Eurasian Union(유라시아공동체)
북중미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TAFTA(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중남미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Pacific Alliance(태평양 동맹)

□ (내부요인) 아·태지역 신흥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역내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효과성이 크게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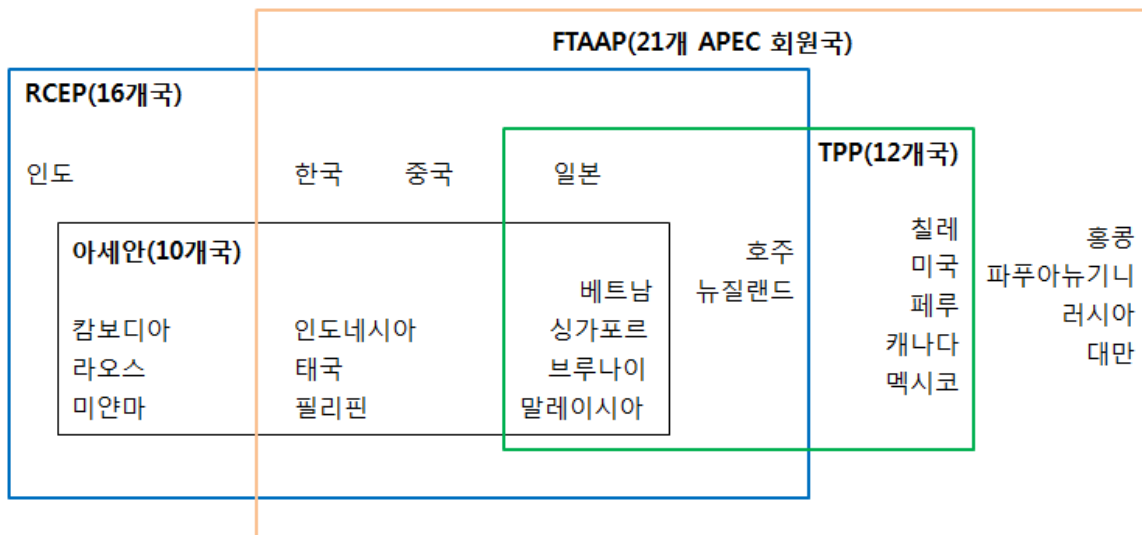
- 선진국의 미진한 경기회복 및 최근 지속된 아·태지역 신흥국의 고성장으로 역내 경제통합 실현시 거대시장 형성 가능
- 다수의 양자간 FTA 체결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및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 양자 FTA 체결 증가시 개별 FTA별 상이한 규정 적용 등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로 경제통합의 이익 감소

2. 아태지역 내 경제통합체 추진 동향

- ◆ TPP, RCEP, FTAAP 등 3개 경제공동체 추진에 25개국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를 제외한 RCEP와 FTAAP는 협상 초기단계 또는 미개시 상태

TPP, RCEP, FTAAP 참가국 비교



- **(TPP)**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등 4개국이 '06년 출범한 경제통합체로, '08년 미국의 참여의사 표명 이후 미국 주도 하에 협상 참여국이 지속 증가하여 현재 12개국*이 협상에 참여중

* 세계 GDP의 39.0%, 인구의 11.4% 점유

- 선진국 또는 중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규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구
 - 다만, 미국이 표명한 협상타결 시한('13년말)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분야의 자유화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상존
- 협상 개시('10.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9차례('13. 8월) 협상 진행
 - 국영기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품목별 원산지규정 등을 놓고 국가간 이견이 노정
 - 한편, 일본의 협상 참여('13. 7월)로 농산물 부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일본이 5개 민감품목(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에 대한 관세철폐 검토의사 발표

- **(RCEP)**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호주 주도로 총 16개 국가*가 협상에 참여

* 세계 GDP의 29.3%, 인구의 49.0% 점유

- 미얀마, 라오스 등 ASEAN 신흥국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통합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개방 수준이 다소 낮은 상품자유화 중심의 협정 추진 예상
- '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3년 9월까지 2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타결 목표를 '15년 말로 설정

- **(FTAAP)** APEC이 추진중인 경제통합체로 21개 APEC 회원국 모두 창설에 원칙적으로 합의

* 세계 GDP의 57.8%, 인구의 40.1% 점유

- 보고르 선언(1994. 11)에서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이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FTAAP 추진 협상이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FTAAP가 창설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제25차 APEC 회의('13. 10월)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FTAAP의 중요성을 강조

아태지역 경제통합체별 비교

	TPP	RCEP	FTAAP
GDP(조 달러)	28.1	21.2	41.8
세계대비 비중(%)	39.0	29.3	57.8
인구(백만명)	793	3,404	2,784
세계대비 비중(%)	11.4	49.0	40.1
참가국수	12개국	16개국	21개국
주도국	미국	중국, 호주	-
협상개시시점	2010. 3.	2012. 11.	-

자료: IMF(2012년 기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경제협력 및 추진정책방향

□ (경제협력)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참여국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구축

○ FTAAP의 우리나라 교역규모 및 해외투자액 점유율이 모두 60%를 초과하나, TPP와 RCEP는 3~40% 수준

-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 및 해외투자 모두 제1~3위 대상국으로, 양국이 모두 포함된 FTAAP가 형성될 경우 TPP와 RCEP 대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

○ 또한, 우리나라가 타결한 총 10개의 FTA 대상국 중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등 4개국은 TPP 및 FTAAP, 인도와 ASEAN*은 RCEP 협상참여국에 해당**

* ASEAN 회원국 중 TPP에는 4개국, FTAAP에는 7개국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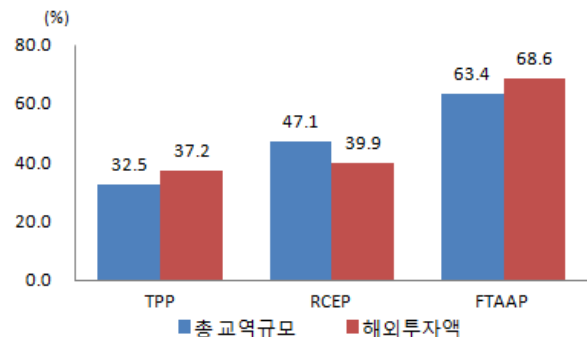
** EU, EFTA,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추진과 무관

경제통합체별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 분포

구분	타결 완료	협상중
TPP	미국, 싱가포르, 칠레, 페루	베트남
RCEP	ASEAN,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FTAAP	미국, 싱가포르, 칠레,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통합체별 교역규모 및 해외투자액 점유율



자료: IMF, 한국수출입은행.

□ (추진정책) 우리나라는 RCEP, FTAAP 추진에는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나, TPP 협상에는 아직 불참

○ TPP 참여시 자동차 및 부품소재산업, 기계산업,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과의 FTA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 또한, TPP와 RCEP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향후 두 경제협력체 모두 FTAAP 창설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